

아파트 평면유형별 가구보유 실태 및 요구

- 부산 해운대 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

Furniture Use and Needs of Apartment Residents in Haeundae, Busan

김민경* / Kim, Min-Kyoung

오찬옥** / Oh, Chan-Oh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urniture use pattern and needs for built-in furniture of apartment residents. The subjects were 289 housewives who live in apartment houses in Haeundae, Busan. The size of apartments was 60m² or 85m². Th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was used.

There was no any furniture pattern which can be categorized as the specific one. That is, each family has different kinds of furniture pattern in living room and master bedroom. Also, some subjects wanted to have built-in furniture in master bedroom.

키워드 : 아파트 가구, 수납가구, 가구패턴

1. 연구 배경 및 목적

60년대 말 아파트가 등장한 이후 아파트의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파트는 다양한 가족생활을 대량공급되는 획일적인 단위주거에 수용해야 한다는 과제를 항상 안고 있다.

아파트가 제공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활 방식에 대한 고려없이 무조건적으로 서구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간과 생활간의 부조화로 인한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은 택지부족이라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여야 하는 유형이었고 부조화를 줄이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거주후 평가 연구를 기본으로 많은 연구결과에 기초한 아파트 평면개발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가족생활에 맞는 아파트 단위 평면이 개발되고 거주자들의 생활을 수용해 주게 됨에 따라 거주자들의 주거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만족도 연구결과 대부분에서 수납공간에 대해서는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

어 아직까지도 수납공간에 있어서는 거주자들의 생활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본 연구는 아파트 수납공간 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아파트 평면유형별 가구보유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범위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질문지를 이용한 사회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조사대상은 부산시 해운대 신시가지 지역의 아파트 거주 주부 289명이었다. 대단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해운대 신시가지에 위치한 총 37개의 아파트 단지 중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에서 본 조사에 협조 의사를 보인 26개의 아파트 단지를 최종 조사 대상지로 하였다. 본 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실내디자인 전공 대학원생과 대학생 12인이 2003년 1월중에 실시하였다.

조사 내용은 거실과 부부침실의 규모와 규모 재조정에 대한 요구도, 보유 가구의 종류, 붙박이가구 설치 요구 등이다. 규모 재조정 요구도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넓히고 싶다'에 5점, '약간 넓히고 싶다'에 4점, '적당하다'에 3점, '약간 줄이고 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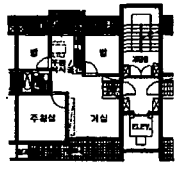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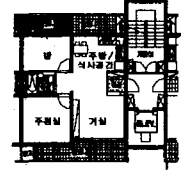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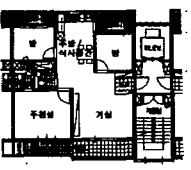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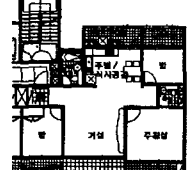
* 정회원, 인제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과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부교수

다'에 2점, '좋이고 싶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규모를 넓히고자 하는 요구가 높은 것으로 보았다.

2.2. 연구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와 85㎡인 아파트이다(그림 1). 또한 아파트 내에서의 모든 주거공간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거실과 부부침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각 실의 면적 배분은 공간의 중요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 중 부부침실과 거실이 주거공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를 둔 것이다.¹⁾

A유형 (60㎡, 180가구)		
	A1유형 (115가구) 거실: 12.3㎡/부부침실: 12.7㎡	A2유형 (65가구) 거실: 13.3㎡/부부침실: 12.9㎡
B유형 (85㎡, 108가구)		
	B1유형 (56가구) 거실: 18.3㎡/부부침실: 17.7㎡	B2유형 (53가구) 거실: 16.0㎡/부부침실: 16.1㎡

<그림 1> 조사대상 평면 유형

평면유형별 거실과 부부침실의 면적을 살펴본 결과, 동일한 전용면적 내에서는 면적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A유형(60㎡)과 B유형(85㎡)의 평면유형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3. 조사결과

3.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 가구의 가장 및 주부의 연령은 주로 3,40대였으며 A유형보다 B유형의 경우가 연령이 더 많았다(표 1). 가족수는 평면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유형에서 4인 가족이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소득은 A유형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5.7%였고 B유형은 300만원이상인 경우가 63.5%였다.

3.2. 거실의 규모 및 가구보유 실태

(1) 거실의 면적

1)박수빈, 居住家口의 主要求 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1, pp.51~52.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가구특성		평면유형	A유형	B유형
		f(%)	f(%)	f(%)
가장 연령	35세 이하		20(11.4)	9(8.4)
	36-40세		53(30.1)	20(18.7)
	41-45세		55(31.3)	29(27.1)
	46-50세		28(15.9)	31(29.0)
	51세 이상		20(11.4)	18(16.8)
계			176(100.0)	107(100.0)
부인 연령	35세 이하		45(25.1)	16(14.8)
	36-40세		70(39.1)	28(26.0)
	41-45세		29(16.2)	33(30.6)
	46-50세		25(14.0)	19(17.6)
	51세 이상		10(5.6)	12(11.1)
계			179(100.0)	108(100.0)
가족수	3인 이하		46(25.7)	30(27.5)
	4인		107(59.8)	69(63.3)
	5인 이상		26(14.5)	10(9.2)
	계		179(100.0)	109(100.0)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37(21.1)	8(7.5)
	200-300만원 미만		78(44.6)	31(29.0)
	300-400만원 미만		40(22.9)	35(32.7)
	400만원 이상		20(11.4)	33(30.8)
	계		175(100.0)	107(100.0)

거실의 평균면적은 A유형의 경우 12.8㎡였고, B유형의 경우는 17.2㎡로 4.4㎡의 차이가 있었고, 전용면적 대비 면적비는 A유형인 경우가 B유형보다 약간 높았다(표 2).

<표 2> 평면유형별 거실의 면적

	A유형	B유형
거실 평균 면적	12.8㎡	17.2㎡
전용면적 대비 거실 면적비	21.4%	20.2%

(2) 거실 보유가구의 종류

거실 보유가구를 조사한 결과²⁾(표 3), 두 평형 모두 50% 이상의 보유율을 보인 가구는 TV/비디오, 2-3인용 소파, 오디오였다.

<표 3>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의 종류

(A유형: N=179, B유형: N=108)

가구종류	A유형		B유형		
	f(%)	f(%)	f(%)	f(%)	
TV/비디오	176(98.3)	105(97.2)	1인용 소파	39(21.8)	47(43.5)
2-3인용 소파	139(77.7)	99(91.7)	피아노	28(15.6)	23(21.3)
오디오	114(63.7)	74(68.5)	에어컨	31(17.3)	47(43.5)
장식장/책장	78(43.6)	62(57.4)	홈서버시스템	22(12.3)	22(20.4)
테이블	57(31.8)	45(41.7)	헬스기구	11(6.1)	18(16.7)
컴퓨터	65(36.3)	34(31.5)	기타	8(4.5)	6(5.6)

* 중복응답 결과임

TV/비디오는 거의 모든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2-3인용 소파는 B유형의 경우는 91.7%의 보유율을 보였으나 A유형의 경우는 77.7%에 불과하였다. 오디오의 경우는 63.7%와 68.5%로 보유율이 비슷하였으며, 장식장/책장은 B유형의 경우 57.4%

2)본 연구에서 가구라 함은 TV, 컴퓨터, 피아노 등의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생활용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한다.

의 보유율을 보였으나 A유형인 경우는 43.6%에 불과하였다.

두 평형간 보유율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가구는 2-3인용 소파, 장식장/책장, 테이블, 1인용 소파, 에어컨, 헬스기구로 모두의 경우 규모가 큰 B유형의 보유율이 높았다.

(3) 거실 보유가구의 유형화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별 거실 보유가구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표 4), 일정한 패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마다 거실에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였다.

<표 4>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의 주요패턴

	기본 가구	추가 보유가구	f(%)
A유형 (179가구)	TV/비디오 + 2-3인용 소파	+ 오디오 + 장식장/책장	12(6.7)
		+ 오디오	9(5.0)
		+ 장식장/책장	5(2.8)
		+ 장식장/책장 + 컴퓨터	4(0.6)
B유형 (108가구)	TV/비디오 + 2-3인용 소파	+ 장식장/책장 + 1인용 소파	5(4.6)
		+ 오디오	4(3.7)
		+ 오디오 + 장식장/책장	4(3.7)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의 보유율이 높아 이를 기본 가구로 하고 이외에 가지고 있는 가구를 중심으로 패턴을 조사한 결과, A유형의 경우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의 기본 가구 외에 오디오와 장식장/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12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본 가구 외에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9가구, 장식장/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5가구였다. B유형의 경우는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의 기본 가구 외에, 장식장/책장과 1인용 소파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5가구로 많았고, 다음은 기본 가구외에 오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와 오디오와 장식장/책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각각 4가구였다.

위와 같이 거실 보유가구를 유형화하기에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경우가 너무 적어 각 평면유형에서 10%미만의 보유율을 보인 기타 항목을 제외한 11가지 종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인 TV/비디오를 기본 가구로 하고 이외에 가지고 있는 가구의 개수를 기준으로 거실가구를 유형화하였다(표 5). 유형 1에서 5는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를 기본 가구로 한 경우이고, 유형 6부터 10까지는 2-3인용 소파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며, 유형 11은 TV/비디오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A유형의 경우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 외에 2개의 다른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6.4%로 가장 많았고, B유형의 경우는 TV/비디오와 2-3인용 소파 외에 4개 이상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으며 2개와 3개의 가구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각각 20.4%였다.

<표 5>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의 유형

유형	기본 가구	가구개수	A유형 f(%)	B유형 f(%)
1		+ 0개	3(1.7)	3(2.8)
2		+ 1개	26(14.6)	9(8.3)
3	TV/비디오 + 2-3인용 소파	+ 2개	47(26.4)	22(20.4)
4		+ 3개	32(18.0)	22(20.4)
5		+ 4개 이상	30(16.9)	40(37.0)
6		+ 0개	2(1.1)	0(0)
7		+ 1개	4(2.2)	0(0)
8	TV/비디오	+ 2개	18(10.1)	2(1.8)
9		+ 3개	7(3.9)	3(2.8)
10		+ 4개 이상	6(3.4)	4(3.7)
11	기타		3(1.7)	3(2.8)
	계		178(100.0)	108(100.0)

(4) 거실 보유가구의 개수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의 개수를 보면(표 6), A유형인 경우는 1-3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30.7%, 4개인 경우가 29.6%로 많았고 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20.1%였다. 반면 B유형인 경우는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7.5%나 되었고 4개인 경우가 24.8%, 5개인 경우가 22.0%의 순이었다. B유형이 A유형보다 거실 면적도 크고 보유가구의 개수도 많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평형별 거실 보유 가구개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를 보여(표 6), B유형이 A유형에서 보다 보유 개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6> 평면유형별 거실 보유가구의 개수

	A유형 f(%)	B유형 f(%)
1-3개	55(30.7)	14(12.8)
4개	53(29.6)	27(24.8)
5개	36(20.1)	24(22.0)
6개	25(14.0)	14(12.8)
7개 이상	10(5.6)	30(27.5)
계	179(100.0)	109(100.0)
평균	4.3 개	5.3 개
t 값		-5.650***

*** p<.001

3.3. 거실의 규모 재조정 및 붙박이가구 설치 요구

거실 규모에 대한 재조정 요구도를 보면(표 7), A유형의 경우 넓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58.8%였고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37.9%로 나타나 현재의 거실면적인 12.3㎡나 13.3㎡에 대해 좁다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60% 정도 되었다. B유형의 경우는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60.6%, 넓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37.3%로 현재의 거실면적인 16.0㎡나 18.3㎡가 비교적 적당하지만 넓히고자 하는 요구도 일부 있었다.

거실에 붙박이가구를 추가 설치하기를 원하는 가구는 A유형은 8.3%, B유형은 10.0%로 적었다. 따라서 거실의 경우 붙박이가구보다는 이동식가구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계획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 7> 평면유형별 거실 규모 재조정 요구도

	A유형	B유형
	f(%)	f(%)
줄임	2(1.3)	0(.0)
약간줄임	3(2.0)	2(2.0)
적당하다	58(37.9)	60(60.6)
약간늘림	49(32.0)	24(24.2)
늘림	41(26.8)	13(13.1)
계	153(100.0)	99(100.0)
평균	3.76	3.49

3.4. 부부침실의 규모 및 가구 보유 실태

(1) 부부침실의 면적

부부침실의 평균면적은 A유형의 경우 12.8㎡였고, B유형인 경우 16.9㎡로 두 유형간에 4.1㎡의 차이가 있었고, 전용면적 대비 면적비는 각각 21.4%와 19.9%로 A유형의 경우가 B유형 보다 약간 높았다.

<표 8> 평면유형별 부부침실의 면적

	A유형	B유형
부부침실 평균 면적	12.8㎡	16.9㎡
전용면적 대비 부부침실 면적비	21.4%	19.9%

(2)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종류

부부침실 보유가구를 조사한 결과 <표 9>와 같이 두 평형 모두 50% 이상의 보유율을 보인 가구는 장롱, 화장대, 침대, 서랍장이었다. 장롱은 거의 모든 가구에서 보유하고 있었고 화장대는 A유형의 경우 73.2%, B유형의 경우 83.3%로 B유형의 10%정도 높으며, 침대는 A유형의 경우는 58.1%, B유형의 경우는 76.9%로 B유형의 보유율이 훨씬 높았다.

<표 9>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종류

(A유형: N=179, B유형: N=108)

	A유형	B유형		A유형	B유형
	f(%)	f(%)		f(%)	f(%)
장롱	164(91.6)	100(92.6)	사이드테이블	25(14.0)	27(25.0)
화장대	131(73.2)	90(83.3)	오디오	18(10.0)	10(9.3)
침대	104(58.1)	83(76.9)	장식장/책장	13(7.3)	7(6.5)
TV/비디오	75(41.9)	67(62.0)	컴퓨터	11(6.1)	3(2.8)
서랍장	93(52.0)	56(51.9)	에어컨	7(3.9)	2(1.9)
문갑	72(40.2)	42(38.9)	차테이블/의자	6(3.4)	1(0.9)
행거(옷걸이)	80(44.7)	48(44.4)	기타	6(3.4)	4(3.7)

• 중복응답 결과임

두 평형간 보유율에 있어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 가구는 침대, TV/비디오, 사이드 테이블, 화장대로 모두 B유형에서의 보유율이 높았으며, 전체 가구 보유율도 A유형 보다 B유형에서 높게 나타나 전용면적이 클수록 더 많은 가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3)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유형화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가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구별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패턴을 조사한 결과(표 10), 가구마다 부부침실에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는 아주 다양하였다.

A유형의 경우, 장롱의 보유율이 높아 이를 기본 가구로 했을 때 이외에 침대와 화장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6가구로 가장 많았고, 행거, 화장대, TV/비디오, 문갑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와 행거와 서랍장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각각 4가구였다. B유형의 경우 장롱, 침대, 화장대의 기본 가구 외에, 서랍장과 행거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5가구로 많았고 기본 가구 외에 TV/비디오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4가구였다.

<표 10>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주요패턴

	기본가구	추가보유가구	f(%)
		A유형 (179가구)	장롱
		+행거+화장대+TV/비디오+문갑	4(3.5)
		+행거+서랍장	4(3.5)
B유형 (108가구)	장롱+침대+화장대	+서랍장+행거	5(9.4)
		+TV/비디오	4(7.3)

위와 같이 부부침실 보유가구를 유형화하기에는 동일한 패턴을 보인 경우가 너무 적어 각 평면유형에서 10%미만의 비율을 보인 컴퓨터, 에어컨, 차 테이블/의자와 기타 항목을 제외한 10가지 가구를 대상으로, 가장 높은 보유율을 보인 장롱을 기본 가구로 하고 이외에 가지고 있는 가구의 개수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표 11). 유형 6부터 10까지는 침대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이며, 유형 11은 장롱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이다.

<표 11>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유형

유형	기본 가구	가구개수	A유형	B유형
			f(%)	f(%)
1		+ 0개	2(1.1)	0(.0)
2		+ 1개	19(10.6)	4(3.7)
3	장롱 + 침대	+ 2개	26(14.5)	22(20.4)
4		+ 3개	20(11.2)	20(18.5)
5		+ 4개	15(8.4)	12(11.1)
		+ 5개 이상	14(7.8)	18(16.7)
6			+ 1개	6(3.4)
7	장롱	+ 2개	14(7.8)	6(5.5)
8		+ 3개	19(10.6)	6(5.5)
9		+ 4개	17(9.5)	8(7.4)
10		+ 5개 이상	12(6.7)	2(1.9)
11		기타	15(8.4)	8(7.4)
	계		179(100.0)	108(100.0)

A유형의 경우 장롱과 침대 외에 2개의 다른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4.5%로 가장 많았고, B유형의 경우는 장롱과 침대 외에 2개 이상의 가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20.4%로 가장 많았으며 3개의 가구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8.5%, 5개이상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16.7%였다.

(4)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개수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의 개수를 보면(표 12), A유형인 경우는 1-3개의 가구를 보유한 경우가 28.5%, 4개인 경우가 25.1%, 5개인 경우가 24.6%로 많았다. 반면 B유형의 경우는 4개인 경우가 27.8%로 많았고 5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22.2%였다. B유형의 경우와 A유형을 비교할 때 B유형이 면적도 크고 보유가구의 개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 개수는 통계적으로도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B유형이 A유형보다 보유가구의 개수가 유의미하게 많았다.

<표 12>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보유가구 개수

	A유형	B유형
	f(%)	f(%)
1-3개	51(28.5)	5(13.9)
4개	45(25.1)	30(27.8)
5개	44(24.6)	24(22.2)
6개	21(11.7)	18(16.7)
7개 이상	18(10.1)	21(19.4)
계	179(100.0)	108(100.0)
평균	4.5 개	5.0 개
t 값	-2.923**	

** p<.01

3.5. 부부침실 규모 재조정 및 붙박이가구 설치 요구

부부침실 규모에 대한 재조정 요구도를 보면(표 13), A유형의 경우 넓히기를 원하는 경우가 45.5%였고 적당하다고 한 경우가 43.4%로 나타나 현재의 부부침실 면적인 12.7㎡나 12.9㎡에 대해 조금 좁거나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가구가 비슷하였다. B유형의 경우는 적당하다가 61.1%, 넓히기를 원하는 경우는 29.5%로 현재의 부부침실 면적인 17.7㎡나 16.1㎡가 비교적 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부침실에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A유형의 경우 41.1%, B유형의 경우 34.0%가 원하고 있어 부부침실의 경우 붙박이 가구 설치에 대한 요구가 비교적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3> 평면유형별 부부침실 크기 재조정 요구도

	A유형	B유형
	f(%)	f(%)
줄임	3(2.1)	1(1.1)
약간줄임	13(9.0)	8(8.4)
적당하다	63(43.4)	58(61.1)
약간넓힘	49(33.8)	20(21.1)
넓힘	17(11.7)	8(8.4)
계	145(100.0)	95(100.0)
평균	3.48	3.28

4.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실의 경우 두 평형 모두 TV나 비디오와 2,3인용 소

파를 제외하고는 가구마다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와 개수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붙박이가구 설치 요구도 낮았다. 또한 현재의 규모에 대해 60㎡인 경우는 어느정도 넓히기를 원하였고, 85㎡인 경우는 적절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으나 넓히고자 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거실의 경우 각 가구의 개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공간이므로 각 가구가 원하는 가구를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하되 TV나 비디오와 2-3인용 소파를 배치하는 것을 고려하면서 60㎡는 현재보다 약간 넓은 거실 공간을, 85㎡인 경우는 현재와 동일한 규모 또는 약간 넓은 거실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부부침실의 경우 두 평형 모두 장롱을 제외하고는 가구마다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종류와 개수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나 붙박이가구 설치에 대한 요구는 다소 있었다. 또한 현재의 규모에 대해 60㎡인 경우는 현재대로 유지하거나 조금 넓히고자 하는 요구가 비슷하였고 85㎡인 경우는 적절하다고 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부부침실의 경우 60㎡와 85㎡ 모두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 가구로 나타난 장롱 정도는 붙박이 가구형태로 제공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부부침실의 규모를 넓히지 않아도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거실과 부부침실의 보유가구 종류를 조사하여 가구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가구의 경우 부피가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를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희·이유미, 소비자 특성에 따른 아파트 실내 공간 선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회지, 21호, 1999.
- 김석경 외 2인, 소형공동주택내 수납공간의 규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7 n.11, 2001.
- _____, 소형공동주택에서의 수납공간 계획 방향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14 n.4, 1998.
- 박수빈, 居住家口의 主要求 모델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1.
- 박영순 외 4인, 거주자 디자인 선호에 따른 아파트 가구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호, 2000.
- 안형준·박준영, 공동주택 수납벽체 시스템의 활성화 제고 방안,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v.18 n.2, 1998.
- 이연숙 외 2인, 한국 3침실형 아파트의 침실공간 가구보유패턴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8호, 2001.
- 이진숙 외 4인, 대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가구이용실태 및 선호조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v.12 n.8, 1996.
- 최승희·임춘삼, 아파트 거실과 식당·부엌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16호, 1998.
- 홍이경·오혜경, 아파트의 수납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학회지, 11호, 1997.